

# 고양 사랑방

고양시민 및 소식지 독자분들의  
소중한 의견에  
더 귀 기울이겠습니다!



온라인  
애독자 참여  
바로가기

## 시민의 소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 · 원고종류

수필·공트·체험수기·기행문·독후감·사진·  
만화 등 제한 없음

### · 원고분량

A4 용지 1장 이내(시·만화 등은 적정 분량)

### · 원고마감

※ 보내주신 작품의 오타, 비문 등은 수정  
될 수 있습니다.

### · 수시 접수

\* 채택되신 분은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보  
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 보낼 곳

10460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주교동) 고양시 언론홍보담당관실  
<고양소식> 담당자

### · E-mail gysosic@korea.kr

### · 고양시청 홈페이지

www.goyang.go.kr  
(늘푸른고양/시정소식지)

### ·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yangcity

## 1 2 월 호 독 자 후 기



### 김미란

휴대폰 페이 기능을 많이 이용하는 요즘 배터리가 방전되면 여간 당황스러운 게 아닌데  
버스정류장에 무선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다니 너무나 유용한 것 같습니다.



### 변금향

주택가 주변을 지나다 보면 어지럽게 쌓인 쓰레기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  
단독빌라 안심환경관리인이 환경관리에 나서서 동네를 깨끗하고 산뜻하게 만들고 있어  
제 마음이 다 뿌듯해지네요.

## 1 2 월 호 정 책 퀴 즈 당첨자

### 백승우, 이정순, 최은영, 흥관중

1. '□□□□□□□□'는 화전역 인근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524㎡ 규모로 2022년 하반기 개관 예정이다.
2. 단독빌라 □□□□□□□□은 주택가 골목을 돌며 여기저기 어지럽게 버려진 쓰레기들을 주워 치우고, 재활용품들은 마대자루에 담거나 정리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

정답 : 고양드론앵커센터, 안심환경관리인



## 엄마와 아파트

글 박정은(일산서구)

“OO 할머니! 여기 호박 좀 받아봐!”

“아니, 호박만 덜렁 두고 가시면 어떡해.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하셔야지.”

“아유, 알았어. 나 은행 불일 좀 보고 이따가 열무김치 담근 거 가지고 잠깐 들르게. 근데 나 이  
번에 양념이 좀 달게 된 거 같은데, 먹어보고 솔직히 말해줘야 해!”

저희 친정엄마께서는 아파트 1층에 사십니다. 그리고 위의 정겨운 대화는 친정집 거실에서 들  
리는 저희 엄마와 이웃 친구분 간의 대화입니다. 굳이 초인종을 누르지 않아도 되는 베란다를  
통해 엄마는 이렇게 이웃과 소통을 하십니다. 바깥의 소음이 집안에 들리기도 하고 집에서 하  
는 말들이 바깥으로 새어나가기도 하는 1층. 안과 밖의 경계가 없는 듯한 친정집. 엄마는 뒷마  
당이 있는 공동주택, 아파트 1층에 살고 계십니다.

평생을 주택에서 사신 저희 엄마는 1년 전 가을, 갑자기 남동생과 함께 살게 되면서 지금의 이  
새로운 집에 사시게 되었습니다. 일평생을 주택에서 텃밭을 가꾸며 자연과 함께 살아오신 엄  
마께서 아파트라는 낯선 주거공간에서 사실 생각을 하니 조금씩이 염려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특유의 친화력과 밝은 에너지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부터 일찌감치 이  
웃분들과 교류하며 잘 지내고 계십니다. 엄마가 사시는 아파트 1층은 베란다에서 바깥으로 나  
갈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관상 현관이 앞뒤로 두 군 데인 것입니다. 또 베란다 앞  
을 어느 정도 내 집 정원처럼 쓰게 해줘서 공동주택 안에서도 나름 주택 같은 느낌으로 살 수  
있는 집입니다.

“엄마, 이게 웬 화초들이예요?”

지난 주말 찾아간 엄마네 거실에 여태껏 못 보던 큰 화초들이 몇 개 눈에 띄었습니다. 여쭙어  
보니 몇 주간 집을 비우게 되신 이웃분의 부탁으로 3일 동안 화초들을 도맡게 되셨다는 것입  
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전엔 웬 강아지 한 마리가 며칠간 집에 와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동네 친구분이 여행을 가게 되어서 맡겼다며 강아지를 안고 연신 행복해하시던 엄마의 얼굴  
이 떠오르네요.

층간 소음 분쟁으로 비극적인 일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내 앞집,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른 채 살아가는 공동주택 아파트. 참 삭막하고 정 없게 느껴지기도 하는 주거공간이지만,  
이처럼 아파트에서도 시골집 주택처럼 사람 냄새나는 환경을 만들며 따뜻하게 살아가고 계신  
엄마를 보며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웁니다. 그리고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며 생각합니다. 삶의  
환경과 분위기를 결정짓는 것은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 사람에 달려있다는 것어요...